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현대중공업그룹, 1천억원 규모 태양광 공사 수주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65MW 발전설비·현대일렉트릭 130MWh ESS 공급 및 설치
- 정주영 창업자 '유조선공법' 서산 간척지 29만평에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건설
- 현대건설, 2019년 1월 상업운전 착수... 2만2천 가구 동시 사용 가능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가 142MW 규모의 모듈을 공급한 미국 애리조나주의 태양광발전소(AVSE II) 전경

현대중공업그룹이 총 1천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육상용 태양광발전소 EPC(일괄도급방식)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와 현대일렉트릭은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65MW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설비와 130MWh급 ESS(에너지저장장치) 공급 및 설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월 2일(월) 밝혔다.

이 발전소는 충남 서산 간척지 29만평 부지에 건설되며, 4월부터 연말까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가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 일체를, 현대일렉트릭

이 ESS를 공급, 설치한다.

특히 발전소 부지는 현대건설 소유의 간척농지로, 지난 1984년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을 이용한 물막이 공사를 성공시키며, 여의도 약 50배 면적의 새 땅을 대한민국 국토에 추가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국내에서 건설하는 육상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2019년 1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며, 약 2만2천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는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의 2배에 이르는 전력을 저장하게 된다.

강철호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대표이사는 “서산 간척지는 과거 정주영 창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역경을 극복했던 장소로, 이 사업 역시 농사가 부적합한 염해농지를 활용한 곳이라 의미가 남다르다”며,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와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내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너지를 내어 국내외 대형 태양광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태양광사업에 진출한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는 세계적 인증기관인 미국 UL과 독일 VDE 지정 태양광 공인시험소를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으로 2014년 리서치기관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로부터 ‘최우수 등급(Tier-1) 태양광 모듈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일렉트릭도 자체 에너지 솔루션 브랜드 ‘인티그리(Integricit)’을 기반으로 ESS를 포함한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서 잇달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공사를 통해 친환경 연계 ESS 설치 실적을 확보해 해외 에너지 솔루션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원고를 받습니다 ●●●

‘월간 계장기술이’ 참신한 원고를 받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원고나, 평소에 소개됐으면 하는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기고·기술정보·연재·산업동향 & 전망 / 자세한 사항은 본지 참조)

▶ 원고 게재 분량 및 내용

- FA와 PA 분야의 주요 품목인 DCS, PLC, 센서, 유량계, 인버터, 컨트롤 밸브, 필드버스(산업통신망), 계측 및 계장 기기, 중전기기 및 발전 플랜트와 이를 활용한 기술 및 산업 전망
- 계측 제어 자동화 설비(플랜트) 분야의 산업 트렌드와 시장 전망

▶ 원고 분량 및 발송

A4지 4~10매(연재는 편집부와 협의)이며, E-mail로 보내시면 됩니다. E-mail이 어려운 원고와 첨부자료(카탈로그와 제품사진 등)는 우편발송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708호) 월간 계장기술 편집부
TEL : (02)2168-8897 / FAX : (02)6442-2168
E-mail : procon@procon.co.kr / lch1248@naver.com

▶ 원고마감 : 매월 15일